

INTRO : KEYWORD

인터뷰이 필진들의 말, 말, 말 :

미래의 콘텐츠 인제는 어떤 소양을 갖춘 사람일까?



“문화를 카메라로만 담아낼 수는 없다. 여러 장르를 한 군데 묶는 융복합을 위한 소양은 소통과 기획 및 관리 능력이지만, 실제로 관객에게 안겨줄 수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 안에 담겨진 창작자의 진정성이다. 가변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진 진정성은 세련된 연출과 최첨단 기술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창작자만의 중요한 소양이다.”

채수응 감독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을 일본어로 ‘오타쿠’라고 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은둔하는 사람을 뜻하는 부정적 느낌이 강했던 오타쿠는, 미래 콘텐츠 업계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일 것 같습니다. 정보를 접하거나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오타쿠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관건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오타쿠를 키울 수 있을지’일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우정 기자



“사람들은 늘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 자신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영상이면 영상, 글이면 글, 그림이면 그림 등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서미희 기자



“최신 노트북을 가졌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문맥에 대한 이해력을 먼저 키우세요. 드론은 그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권봉석 기자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을 중요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소통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미래의 콘텐츠 인제는 바로 이 변화하는 소통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가 바로 달라진 소통 양상의 좋은 예시일 것이다.”

백인석 기자



“가슴에 품은 꿈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 꿈에 미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가 콘텐츠 시장의 영웅이 된다.”

서진욱 기자

